

정규직 3년만에 감소...비정규직 비중 38% '역대 2위'

8월 근로형태 통계...정규직 15만명 줄고 비정규직 34만명 늘어 광주·전남도 비정규직 각각 1만4000명·5만3000명씩 증가

#.서주형(31)씨는 하나로마트 곡성농협분점에 지난해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물품 계산, 적재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학창시절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꿔 관련 학과까지 졸업했지만, 지역 소재 게임 개발 회사 정규채용에 다섯번 연속 떨어진 데다 스타트업에 하기로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서씨는 하나로마트 매장 업무에 집중해 내년 중 연간 1-2회 채용하는 농협하나로마트 정규직 시험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두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기업 유치 노력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 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8월 기준 1368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 7000명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이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3만 7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임금근로자 1368만

5000명 중 차지하는 비중은 38.2%까지 치솟았다. 이는 근로형태별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지난 2021년 8월(38.4%)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뚜렷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8월 전남지역 정규직 근로자는 33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0.9%) 감소했다. 5년 전인 2019년 8월(36만 7000명)보다는 3만 1000명(8.4%)이나 줄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23만 5000명에서 28만 8000명으로 5만 3000명(22.5%) 늘었다. 광주는 지난 5년간 정규직 근로자가 1000명 줄어드는데 그쳤지만, 비정규직은 21만 8000명에서

23만 2000명으로 1만 4000명(6.4%) 증가했다. 전국적인 정규직 감소 및 비정규직 증가 현상은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서 정규직 채용 대신 비정규직 채용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에서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만 2000명 늘어 가장 큰 변동폭을 보였다. 이어 보건사회복지업(+5만 4000명), 제조업(+4만명), 전문과학기술업(+4만명), 도소매업(+3만 9000명) 순이었다. 은퇴 후 비정규직에 뛰어드는 고령층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비정규직 증감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19만 3000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도 대폭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형태

별로 보면 시간제 근로자가 425만 6000명으로 1년 새 38만 3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운데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포인트 오른 50.3%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규직 근로자는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늘어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임금 격차도 역대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임금은 379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만 3000원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4만 8000원으로 9만 1000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지만,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는 174만 8000원으로 역대 가장 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HS효성첨단소재 '카본 코리아' 참가...초고강도 탄소섬유 선 보여

70여 기업 참가 전문가 컨퍼런스

HS효성첨단소재는 22일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카본 코리아 2024(CARBON KOREA 2024)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카본 코리아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한국탄소노산산업협회가 주관하며 탄소소재 및 중간재, 응용부품 등 기술 트렌드 공부를 위한 국내 유일의 산업 전시회다. 전시회에는 국내외 70여 개 기업이 참가하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번 전시회에서 고압용기용 초고강도 탄소섬유 원사와 함께 탄소섬유로 제작한 고압용기, 전기차용 골격 구조 부품인 시트 크로스 멤버, 골프 샤프트, 테니스 라켓 등을 전시한다. 또 자체 탄소섬유 브랜드인 '탄섬(TANSOME)'을 홍보한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011년 고강도 탄소섬유 '탄섬(TANSOME)'을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2022년 강도

가 철보다 14배 이상 높은 'H3065(T1000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 항공·우주 등 고부가가치 탄소섬유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HS효성첨단소재는 탄소섬유와 관련한 국내외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또 아시아 최대 국제 복합재료 산업박람회 'CCE', 북미 최대 복합소재 전시회 'CAMX' 등에 꾸준히 참여하며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증기청 '공공구매 박람회' 성료

40개 기업 참여 맞춤형 상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전남2024 공공구매 박람회'를 개최했다. <사진> 광주지방조달청과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박람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참여기업이 40개로 확대돼, 우수조달과 친환경, 창업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박람회에 참가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은 전기·가전·엔지니어·안전·건축 등 기관별 수요 물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토대로 참여기업들과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이와함께 증기청과 조달청은 기업지원 상담부스를 운영해 기업들의 경영에 해소 컨설팅, 공공구매제도 및 조달제도 등을 안내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4개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공공구매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의 발굴·육성에 노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종래 광주·전남증기청장은 "앞으로 공공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4개 기관이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서도 오늘 협약이 잘 이행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 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의선 회장, 모디 인도총리 만남...“모빌리티 사업 적극 협력”

전기차 보급 등 동참 의지 표명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인도법인 상장을 기념해 인도를 방문,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현대차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지난 21일 인도 델리의 총리관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 인도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발전과 인도와 현대차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대차그룹은 1996년 인도 진출 이후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단일 국가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번째 규모의 내수시장을 갖췄는데, 현대차그룹은 3개 공장을 운영 중에 있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인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인도와 한국의 경제적 협력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문화와 문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에 대한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대차그룹이 인도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계획들에 대해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자동차 시장 가운데 하나인 인도에서 28년 이상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인도에서 두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인도 정부의 관심과 인도 국민들의 현대차그룹에 대한 사랑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밖에 인도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동참 의지도 표명했고, 로보틱스,



지난 21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왼쪽)이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인도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미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UAM, 수소, 소형원자로(SMR) 등 현대차그룹의 신사업들도 소개했다. 앞서 정 회장은 모디 총리와 여러 차례 만나 양국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그는 2015년 모디 총리의 방한, 2016년과 2018년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 2018년 인도 '무

브 모빌리티 서밋', 2019년 청와대 오찬 등에서 모디 총리와 면담했다. 한편, 정 회장은 22일 현대차 인도법인 인도증시 상장(IPO) 기념식에 참석하고 현대차그룹 인도 중장기 전략을 점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9월 생산자물가 배추 61%·토마토 51% 급등

지난달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이 대폭 올랐지만, 공산품, 서비스업 등 가격은 모두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생산자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17로 전월(119.38) 대비 0.2% 하락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끝없이 치솟다가 지난 6월 7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7월 한 달만에 상승전환했지만, 올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또다시 두 달째 하락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5.7%)과 축산물(+8.2%) 등이 전월 대비 크게 올라 농림수산물 5.3%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배추가 61%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토마토(51.1%), 돼지고기(16.1%), 쇠고기(11.2%) 등이 올랐다. 이밖에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에서 주택용 전력(13.9%), 산업용도시가스(0.8%) 등이 올라 0.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산품에서는 지난달 국제유가가 하락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6.3%), 화학제품(-1.2%) 등이 내려 0.7% 하락했다. 또 서비스업에서도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4%), 운송서비스(-0.5%), 금융 및 보험(-0.4%) 등의 영향으로 0.7% 하락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 소비자·소상공인 단체 국감 중인 시정앞 피켓시위 공공배달업 활성화 등 촉구

광주지역 소비자·소상공인 단체들이 22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시 국정감사'를 맞아 피켓시위를 갖고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배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이상갑 광주시 경제부시장에게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연대 활동으로 피켓 시위에 나섰다. <사진> 특히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일방적으로 44% 인상한 것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물가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번 시위를 통해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정부 배달비 지원 정책 공공배달업 우선 지원 ▲소상공인 매출 상황 고려한 차등 수수료제도 도입 ▲과도한 배달업 마케팅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거시 소상공인연합회 광주지회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삼성전자 'KES 2024'서 'AI 라이프' 제안

인공지능 기반 기술·제품 전시

삼성전자는 22일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5회 한국전자전(KES 2024)에서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과 제품을 전시한다. 삼성전자는 AI로 새로워진 일상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AI 밸리'를 조성했다. 삼성전자는 밸리 첫 공간으로 'AI 홈'을 구성하고 삼성전자의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Knox)'를 가장 앞에 내세웠다. 녹스 매트릭스, 녹스 볼트, 패스키 등 강력한 보안 기술로 AI로 모든 가전을 연결하면서도 완벽한 보안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안 곳곳을 스마트싱스로 연결할 수 있는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서면 AI 가전으로 패밀리 케어를 할 수 있는 장면이 펼쳐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방 조명이 켜지면서 약 먹을 시간을 알리고, 약을 꺼내기 위해 서랍을 열

면 조명이 켜지면서 알람이 해제된다"며 "부모님의 안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I 오피스'에서는 AI가 어떤 인식을 통해 직원 출퇴근을 확인하고 맞춤 공간을 조성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어 'AI 스토어'인 카페에서는 스마트싱스 프로로 매장 관리를 자동화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70.70 (-34.22)
↓ 코스닥	738.34 (-21.61)
↑ 금리(국고채 3년)	2.940 (+0.038)
↑ 환율(USD)	1379.30 (+4.10)